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40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성명서

대한체육회장 유승민은 공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다.

01

체육시민연대 "유승민 회장 무혐의 처분, 불법 사실관계 바뀌지 않아" 주장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02

경찰 "유승민 '인센티브 차명수령' 의혹, 관련자 15명 조사"

뉴시스 이수정 기자

03

[2025 국감] 체육계 폭력·성범죄 여전..."유관기관 책임 회피"

더팩트 신진환 기자

04

“여전히 주먹이 먼저” 체육계, 인권신고 1위는 ‘폭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05

체육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한국생활체육뉴스 박경호 기자

대한체육회장 유승민은 공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다.

오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불법으로 지급한 후원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청한 바와 같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용인서부경찰서가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결과다. 경찰은 직무 유기 혐의는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업무상 배임 방조 및 업무상 횡령 등 2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승민은 자신의 SNS에 “1년 가까이 이어진 악의적인 민원과 투서, 유언비어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악의적인 민원과 투서, 그리고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유승민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벌인 엄연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마타도어로 규정하며, 국민을 호도한 것이다.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후원금에 대해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국가대표 선수를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로 바꿔치기한 사실관계는 변치 않는다. 이에 체육시민연대가 고발한 횡령과 배임, 국가대표선수 바꿔치기 등 사건은 방조와 같은 공범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 비리를 저지른 공동정범에 관한 내용으로 여전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무혐의’는 유승민의 직무유기와 2건의 방조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가 완전히 죄를 벗었다는 내용이 될 수 없다.

만약 후원금에 대해 임의로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관계가 죄가 안된다면, 또 국가대표를 자기의 제자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면, 앞으로 정회원 57개, 준회원 9개, 인정단체 8개의 가맹단체와 17개 시도체육회, 17개의 해외지부,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수많은 체육회는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인센티브를 남발하고, 국가대표나 지역대표는 ‘누가 보더라도’라는 식의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체육 단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피땀 흘려 훈련하는 개인 회원보다 자신들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대표 선발과 자신들을 배를 불러줄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체육행정을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사실관계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승민은 자신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다면 즉시 사퇴하겠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했다.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비리의 사실관계가 명백한 마당에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31일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 "유승민 회장 무혐의 처분, 불법 사실관계 바뀌지 않아" 주장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2025-11-03 10:07:54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가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체육시민연대는 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후원금에 대해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국가대표 선수를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로 바꿔치기한 사실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시민연대가 고발한 횡령과 배임, 국가대표선수 바꿔치기 등 사건은 방조와 같은 공범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 비리를 저지른 공동정범에 관한 내용으로 여전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무혐의’는 유승민의 직무유기와 2건의 방조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가 완전히 죄를 벗었다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체육시민연대는 “만약 후원금에 대해 임의로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관계가 죄가 안된다면, 또 국가대표를 자기의 제자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면, 앞으로 정회원 57개, 준회원 9개, 인정단체 8개의 가맹단체와 17개 시도체육회, 17개의 해외지부,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수많은 체육회는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인센티브를 남발하고, 국가대표나 지역대표는 ‘누가 보더라도’라는 식의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 단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피땀 흘려 훈련하는 개인 회원보다 자신들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대표 선발과 자신들을 배를 불러줄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체육행정을 보게 될 것이다”며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사실관계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요구했다.

01

앞서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해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도 답변했다.

경찰 "유승민 '인센티브 차명수령' 의혹, 관련자 15명 조사"

뉴시스 이수정 기자

2025.11.03 16:21:11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1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 총 3건을 접수해 관련자 1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유 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벌어진 후원금 리베이트 불법 지급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가 대한탁구협회에서 총 2억여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경찰은 유 회장이 인센티브를 A씨 명의로 챙긴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을 수사한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최근 유 회장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4명을 추가 조사해 총 8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차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

주식 계좌에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25 국감] 체육계 폭력·성범죄 여전…"유관기관 책임 회피"

더팩트 신진환 기자

2025. 10. 27. 10:43

사진=정연욱 의원실

체육계에서 여전히 폭행과 성범죄 등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기관은 서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최근 5년간(2021년~올해 8월) 접수된 사건은 모두 3279건이다.

전체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건수 유형은 '폭력'으로, 전체 신고 건수 17.2%에 해당하는 564건에 달한다. 이어 △조직사유화(327건) △횡령·배임(280건) △성희롱·성폭력(225건) △승부조작(158건) 차례다.

정 의원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징계 실효성이 부족하고 징계정보시스템(DIS)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 중 징계 요청은 156건"이라며 "실제 제명은 13건뿐이며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징계정보시스템에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학생선수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학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 재발 방지 다짐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청, 체육회, 학교가 서로 뒤로 물러서고 피해자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도자와 선수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기에 '학교 소관'이라는 말로 체육회가 손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구분	수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신고 중 폭력 비율	17.2% (최다)
최근 5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588건
그 중 징계 요청	156건
제명 조치	13건 (8.3%)
학교가 징계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사례	48건
반복 발생 사건 유형	폭행·성폭력 안전조치 미흡 등

“여전히 주먹이 먼저” 체육계, 인권신고 1위는 ‘폭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25. 10. 27. 05:38

자료=정연욱 의원실

체육계 인권신고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건은 ‘폭력’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가운데 폭력 비율은 17.2%에 달한다”며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다”고 말했다.

27일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 요청은 156건으로, 실제 제명은 13건뿐이다.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었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면서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이 흩어진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선다.

정 의원은 “지도자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왜 체육회는 ‘학교 소관’이라며 손을 떼느냐”고 질타했다. 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드물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징계정보 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며 “체육회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한국생활체육뉴스 박경호 기자

2025.11.03 07:18

사진=한국생활체육뉴스

충북 괴산군이 올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잇달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유치한 전국 규모 등 체육대회는 총 42건, 괴산을 찾은 방문객은 1만 2,000여 명, 추산된 직·간접 경제효과만도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 7월 열린 ‘자연울림 괴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몰린 선수단과 가족, 임원 등 2,800여 명이 괴산을 찾아 사흘간 머물며 12억 원의 소비 효과를 냈다.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에 활력이 돌면서 ‘체육이 곧 지역경제’라는 공식이 현실로 증명됐다.

괴산군은 씨름·배드민턴·피클볼·축구·족구 등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대회까지 고르게 유치하며 체육도시 이미지를 강화했다.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는 1,700여 명이 참여해 약 5억 원의 경제효과를 냈고, ‘FUN80 전국 피클볼 대회’와 가족 단위 생활체육대회는 군 단위 지역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흥행을 기록했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괴산은 전지훈련지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만 53개 팀, 640여 명이 괴산을 찾아 약 3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냈다.

괴산을 찾는 전지훈련팀에는 보조금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관내 병원 물리치료 지원, 공연장·극장 할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방문율을 높였다.

관내 숙박업소는 물론, 식음료·교통·편의업종 등 전 업종의 지역 상인들은 “이제 체육대회가 연중 매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함박웃음이다.

괴산군은 민선 8기 들어 체육을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정하고, 총 970억 원을 들여 스포츠타운, 반다비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과감한 체육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괴산스포츠타운은 총 19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 6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며 오는 7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제규격 축구장 2면과 실내·외 테니스장 9면을 갖춰 전국 유소년 및 생활체육 대회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씨름전용 훈련장은 총 40억 원을 들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헬스, 수영, 농구 등 읍·면 지역 동호인 활동과 전지훈련을 위한 체육관은 괴산읍, 송면, 감물, 덕평, 청안반다비 등 5곳이 준공을 마쳤다.

11억5,000만 원을 투자한 정용파크골프장과 3억8,000만 원을 들인 연풍 그라운드골프 연습장도 올해 문을 열었으며, 40억을 투입하는 칠성파크골프장도 올해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소수·청천 다목적체육관도 현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170억 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노년층·장애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괴산군 여자 씨름단의 약진도 괴산의 ‘체육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울주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무궁화급과 매화급 두 체급을 동시 석권하고, 괴산유기농배 대회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며 ‘괴산=씨름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켰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체육은 이제 경기의 장을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산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체육이 돈이 되는 도시, 군민이 건강해지는 괴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